



지은이 - 미치 앨봄  
옮긴이 - 공경희  
펴낸곳 - 세종 서적

끝이면서 시작인 이야기

##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에디라는 사람이 햇빛 속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서부터 시작한다.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죽음이란 끝이다. 하지만 끝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80이 넘는 할아버지 에디는 〈루비가든〉이라는 놀이기구의 관리인입니다. 놀이기구를 손질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돌보면서 젊을 때부터 일했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부인도 없이 혼자 사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놀이기구의 고장으로 어린 여자아이가 죽음의 위협에 처하자 에디는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하려하다가 죽으면서 그 순간부터 진정한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에디는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사고를 당하게 한 〈파란 사나이〉를 시작으로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살려준 대위, 그리고 화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그토록 사랑하며 잊지 못하던 아내 마거릿과 마지막으로,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있다 탈출하면서 불태운 적지의 석탄 탄광에서 죽어간 필리핀 소녀 탈라까지 자기 인생에 알게 모르게 깊이 연관되어 있는 다섯 사람을 만나 절망과 슬픔과 분노로 쓸모없었다고 생각한 자신의 삶에 대해 의미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가지게 되며 사랑하며 살아야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지은이의 다른 책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도 훌륭한 책이지만 여러분에게 권하기는 이 책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놀이 공원이 배경이니까요!

〈글/김영숙(시인, 해오른누리기획실장)〉